

목포역 신축... 490억 투입 복합문화공간 조성

선상 역사 2028년 준공 계획 철로 위 승객맞이방 등 조성 반세기 만에 노후시설 개량

호남선 상징 대표 역사인 목포역이 준공 반세기 만에 노후 시설 개량을 통해 선상 역사(線上驛舍)로 신축된다.

선상 역사는 철로 위에 승객 맞이방을 비롯해 각종 역무 시설이 들어선 역사를 말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 사업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공사는 앞서 지난 11월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심의를 마친 가운데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해 쾌적한 역사 환경과 고객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설물 재배치를 통한 고객 이동 동선을 최적화한 선상 역사로 신축한다.

목포역은 1913년 개통된 이래로 1978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용객은 평일 평균 7000여명, 주말 평

균 1만명 이상으로 서남권 최대의 교통 집결지다. 호남선과 남해선의 거점역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시·종착역이라는 높은 상징성도 갖고 있다.

이번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전남도가 목포시와 함께 2022년부터 수차례 국회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노후역사 개량을 지속 건의해 반영됐다.

전남도는 도민에 최상의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철도 건설 사업 예산 5511억원도 함께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484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382억원), 남해선(보성~임성리 289억원) 철도 건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동북아 해양시대 글로벌 관문이자 철도·도로·해양 진출의 기점인 목포역이 노후화돼 그간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남해선 ‘보성~임성리’ 철도가 개통되고 선상역사로 신축되는 목포역이 서남권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무안군, 창업 공간 무상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국립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센터장 유영재)에서 운영하는 MNU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2024년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0개사다. 자격은 사업 소재지가 전남 지역이며 창의적인 제조 기술 아이디어를 갖춘 7년 이내 기업 또는 3개월 이내(입주일 기준)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는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는 2024년 1월부터 1년간 입주 및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은 오는 18일 오후 3시까지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사무공간 △시설·장비 △회의실 △교육 및 특강 △사업화 지원 △전문 멘토링 등 MNU메이커스페이스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MNU메이커스페이스 홈페이지(<http://mnumakers.kr>)를 참조하거나 창업혁신센터(061-980-0026)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2024 노인일자리 참여 모집 무안군, 20일까지

무안군(군수 김산)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을회관 관리도우미, 노노케어, 복지시설지원, 도서관 도서관도우미 등 공익형 일자리대상자 2200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무안군은 오는 20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내년 1월 최종 인원을 선정·통보할 예정이며 공익형 노인일자리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월 30시간씩 활동하고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는다. **무안=김행언 기자**

취약계층 연탄 나눔 봉사활동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최혁)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혁영)가 지난 5일 연말연시를 맞아 유달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1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양기관은 1세대에 연탄 300장을 전달했으며 백미(10kg) 12포대와 라면 12상자(70만원 상당)를 유달동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후원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연례행사로 유달동에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소속 직원 30명이 참여, 연탄 300장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목포=정기찬 기자**

‘남도의 순간’ 수상작 전시 전남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이 목포역과 광주공항에서 2023 전남관광 SNS 여행사진 공모전 ‘남도의 순간’ 수상작을 전시하고 있다.

목포역 선상통로와 광주공항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관광객에 전남 관광지를 알리고자 추진했다.

전시회는 20일까지 목포역, 2차는 20~29일 광주공항에서 개최된다.

수상작은 1차 심사와 대국민투표로 진행된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이며 전남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담은 60점을 선별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입선을 제외한 38점이 전시된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 3점은 ‘고흥 거금도 오천향’(권미라), ‘순천 낙안읍성 마을의 화이트크리스마스’(나기환), ‘화순 세랑지의 봄’(이정희)이다.

재단 누리집(www.ijnto.or.kr)을 통해 온라인 전시회도 감상할 수 있다.

김영신 대표이사는 “목포역과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수상작을 보며 힐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12월 친환경농산물 미나리 선정 전남도, 순천시 정지환씨



전남도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재배하는 ‘정지환씨의 무농약 미나리’를 12월 전남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다.

미나리는 겨울에 특유의 향이 짙어지고 한층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순천만에서 무농약 미나리를 재배하는 정지환(68) 농가는 올해 9월 정식한 미나리를 본격 수확하느라 12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정씨는 2007년부터 발효액과 토착 미생물 등 친환경자재를 직접 제조하는 등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농협, 생협 등 소비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전략품목 육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친환경 미나리 생산농가의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만 친환경 미나리 구입은 순천시청 친환경농업과(061-749-8707)로 문의하면 된다. **박간재 기자**



전남관광재단이 목포역과 광주공항에서 2023 전남관광 SNS 여행사진 공모전 ‘남도의 순간’ 수상작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회는 20일까지 목포역, 2차는 20~29일 광주공항에서 개최된다. **전남관광재단 제공**

2023 찾아가고 싶은 겨울 섬 신안 압해도·흑산도 선정

내년 1월1일까지 겨울꽃 축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3 겨울철 찾아가고 싶은 섬’ 5곳에 압해도와 흑산도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찾아가고 싶은 섬’ 5곳은 겨울 대표 꽃인 동백꽃향이 가득하고 겨울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들로 선정되었다.

압해도는 섬의 지세가 삼면으로 퍼져 바다를 누르고 있는 형태로, 5000만 평의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1004섬 분재정원에서 올해 8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25일간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린다.

송골산 기슭 5만평에 식재된 2만여 그루의 애기동백이 장관을 이루며 인공눈길로 만든 ‘눈 내린 동백 꽃길 걷기’,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 나무에 묶는 ‘소원지 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분재·겨울풍경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

섬 전역에 울창한 산림이 발달해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검게 보여 붙여진 흑산도는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문체부의

K-관광섬으로 선정된 곳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섬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일주도로를 통해 명소를 탐방할 수 있다.

흑산도만의 인문·문화자원을 핵심 주제로 ‘자산어보’ 관련 콘텐츠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가 서 있는 상라산 전망대는 흑산도항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며, 정약전의 사촌서당과 철새박물관·새공예박물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신안=홍일갑 기자

영암군 ‘귀향인의 보금자리’ 마더하우스 1호 완공

영암군이 신북면 수현마을에 귀향인의 보금자리 ‘마더하우스’ 1호를 완공했다.

마더하우스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고향’이란 의미를 담아 영암군이 ‘귀향인 주택수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5000만 원을 투입해 수현마을 한 빈집 방·부엌·화장실 등을 새 단장했다.

마더하우스 1호점의 주인공은 김금순 씨이다. 김 씨는 영암에서 태어나 살다 결혼과 함께 서울로 떠났다.

대학에서 축산업을 공부한 아들이 영암에서 축산업을 결심하자, 남편·아들과 함께 지난 2019년에 귀향해 빈집을 수리해 살아왔다. 올해 영암군의 마더하우스 사업 소식을 듣고 지원했고, 이번에 첫 마더하우스 주인이 되었다.

김 씨는 “새로 태어난 집을 보며 가족이 기뻐하고 있다”면서 “잘 가꾸며 행복하게 영암에서 살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현재 영암읍 2호점, 군서면 3호점 마더하우스의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마더하우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내년 1월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신안군, 1004분재정원서 섬겨울꽃축제

신안군은 8일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 축제’ 개막식을 가졌다.

7번째 맞은 ‘2023 섬 겨울꽃 축제’는 신안군 겨울풍경과 애기동백꽃을 중심으

로 내년 1월1일까지 25일간 펼쳐진다. 축제기간 소원지 쓰기, 느린엽서 쓰기, 동백꽃 그림 그리기 등 체험행사가 열리며 이벤트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말

보물찾기가 진행된다. 유료 입장객 중 1004번째, 2004번째, 1만4번째 입장객에 기념품을 선물하는 ‘행운의 입장객’ 이벤트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애기동백꽃의 아름다움을 통해 기억에 남는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